

乾坤卦 研究

琴 鍾 友*

琴 土 樹**

《 目 次 》

- | | |
|--------------|----------------|
| I. 序 言 | III. 乾坤卦의 卦辭爻辭 |
| II. 易과 易書 | 1. 乾卦의 卦·爻辭 |
| 1. 易之爲書 | 2. 坤卦의 卦·爻辭 |
| 2. 卦爻와 乾坤의 象 | IV. 結 言、 |

I. 序 言

退溪先生이 68세 되는 해(1568) 그 前年(1567)에 明宗이 昇遐하고, 곧 即位한 17歲의 어린나이의 宣祖에게 民本主義 愛君憂國의 충정으로 <聖學十圖>를 올렸다. 이 <聖學十圖>와 함께 올린 <進聖學十圖割并圖>에서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말이 없습니다. 河落圖書가 나옴으로 부터 聖人이 그것에 말미암아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습니다」고 하였다. (……道無形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 이것은 性理學의 基本인 哲學인바 退溪가 여기서 다시 強調한 것이다. 三爻의 小成卦8卦가 基本이 되어 이를 겹쳐서 六爻의 大成卦64卦가 되니 爻는 384爻가 된다. 乾坤卦는 이들 卦爻의 門이라고 한다. 繫辭下傳에 「乾坤(乾坤卦)은 周易의 門인저(乾坤易之門耶)」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乾坤두卦는 64卦의 根幹이니 나머지 62卦는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乾坤두卦는 62卦의 父母이니 그 두個의 卦辭, 爻辭 彖傳, 爻辭를 研究하면 64卦의 義理에 通할 수 있다. 한爻 한爻에 64卦, 384爻의 義理가 포함되어 있다. 64卦 384爻를 窮究하면 人間事 百般의 事象에 관하여 避凶就吉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乾坤두卦는 乾卦에 있어서도 剛健의 道만을 論한 것이 아니고 坤卦에 있어서도 柔順의 道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陽中에 陰이 있고 陰中에 陽이

* 慶北大學校 教授.

**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 博士過程修了.

있는 義理에서 그러한 것이다. 여기서 易道의 끝없는 變化가 있고 一陰一陽의 義理가 나타나 있다.

Ⅱ. 易과 易書

1. 易之爲書

《易》은 《周易》이라고도 하며 經典으로서 존중하여 《易經》이라고 하는데 儒敎의 經書의 하나이다. 經字는 本來 織物의 날실을 뜻한 것이다. 여기서 形而上的인 道(道)의 뜻이 됐다. 人生의 삶의 道, 修齊治平의 道 宇宙의 窮極에 있어 宇宙를 움직이는 道를 밝히고 있는 것이 經이다. 그것은 聖人이 지었거나 編纂한 典籍이며 眞理와 그 探究의 源泉이며 《易經》, 《詩經》, 《書經》을 三經이라 한다. 易은 陰陽의 變化로써 天地人 三才의 道를 말하고 있다.

곧 太極陰陽論이다. 繫辭上傳 第五章에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라 하고 「生生之謂易成象之謂乾效法之謂坤」이라고 하고 있다. 一陰一陽이라고 하는 것은 陰陽은 相對가 되어 있고 짝이 되어 있고 待對하여 비로소 成立한다는 것이다.

두 氣가 往來循環하여 陰陽은 互爲其根하며 끝없이 消長交錯하는 것이 天地道이며 易의 道이다. 곧 陽氣가 盛하면 春夏가 되고, 陰氣가 盛하면 秋冬이 된다. 天地道를 계승해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人道의 善이다. 그래서 이 陰陽의 消長交錯活動을 되풀이 하는 天地道를 成就하고 完成한다. 天地의 道는 秋冬에서 春夏가 생기고 밤(夜)에서 낮(晝)이 생기는 것 같이 陰에서 陽이 생기고 또 陽에서 陰이 생겨 낳고(生産) 나는 것이 끝이 없다. 이 天地造化를 具象化한 것이 易이다. 太極이 動하여 陽이 생기고 太極이 靜하여 陰이 생긴다. 그래서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고, 八卦가 十六, 三十二, 六十四卦를 낳는다. 이와같이 끝없이 낳고 낳는다. 日月星辰과 같은 天의 象을 본뜬것, 或은 베끼(寫)것이 乾이며 山川草木과 같은 땅의 形象을 본뜬 것이 坤이다. 萬物生成이 乾坤의 道이다. 繫辭下傳 第一章에는 「天地之大德曰生」이라고 한다. 곧 「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何以聚人曰財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라 한다. 天地의 위대한 德은 生이라고 한다. 生産하고 生産하여 化育한다. 聖人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位라고 한다. 높은 地位에 있어야 萬民을 福되게 하고 天地를 도와서 낳고 낳아 化育하는 功을 成就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높은 地位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仁이다. (或은 人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을 도와야 지킬 수 있다.) 民은 나라의 根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民을 모으고, 心服케 할 것인가? 삶의 必需物資가 그렇게 할 수 있다. 必需物資를 增産하여 生活을 보장하고 生活을 向上시키면 사람이 모여든다. 다음은 是是非非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民에 가르친다. 끝으로 民의 非行을 禁한다.

위의 세가지는 正義에 의해서 마땅히(宜) 할 수 있으니 이것을 義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易>은 첫째 占筮의 책이다. 일찌기 나라의 大事를 決定하고 人事의 吉凶을 占 에 묻는 일이 많았다. 殷代(前18세기~前12세기)에는 거북점(龜卜占)으로 吉凶을 占치는 方法이 널리 쓰였으나, 周代(前12세기~前3세기)에는 龜卜占보다 筮占이 널리 使用됐다. 《周禮》에서 太卜이라는 官吏가 占筮를 관장하고 《三易》으로 占을 친 것을 알 수 있다.¹⁾ 書經 洪範에는 卜筮로서 疑問을 풀고 있다. 그밖에 周書, 詩經, 左傳, 國語에도 卜筮의 用例를 볼 수 있다. 筮字는 竹과 巫가 合친 字이다. 《三易》이란 《連山易》, 《歸藏易》, 《周易》이다. 《連山易》은 神農氏時代의 《易》으로 艮卦로 부터 始作하고 夏王朝때 使用하였고 《歸藏易》은 皇帝時代의 《易》으로 坤卦로 부터 始作하고 殷代에 使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連山易》, 《歸藏易》은 지금 傳하지 아니하여 周代의 《易》이 《周易》인데 現在 쓰이고 있다. 《周易》은 乾卦로 부터 始作하고 伏羲氏가 始畫八卦하고 文王이 羑里獄에서 演易하여 卦辭를 달고 周公은 爻辭를 달고 孔子가 十翼을 달았다. 程子は <易序>에서 易書는 「卦爻象象의 義理가 갖추어져 있어 天地萬物의 實情이 나타나 있다. ……易은 卜筮에 의해서 避凶就吉하는 智慧를 열어주어 天下를 먼저 모든 人間과 그 밖의 生命體의 막힌 것을 열어 發展케 하고 뒤에 모든 事業을 成就하게 하였다(易之爲書卦爻象象之義備而天地萬物之情見……先天下而開其物後天下而成其務……)고 하고 있다. 朱子는 「易은 本來 卜筮를 위해서 지은 것(易本爲卜筮)이라고 《朱子語類》 六十六卷에서 말하고 있다.

周易은 그 卓越한 豫測의 作用으로 일의 幾微를 認知할 수 있는 老成한 處世의 智慧가 담긴 책이다. 뿐만 아니라 周易은 宇宙와 人間을 一貫하는 道理를 밝히는 宇宙論이다.

宋代의 新儒學은 老莊, 佛敎學에 대항하는 形而上學的理論을 여기서 求하게 된 것이다. 《漢書藝文志》에는 「易의 道는 깊다. 사람은 三聖이 바뀌고, 世月은 三古를 지났다」²⁾고 하였다. 周易은 變化에 對處하는 道를 말하고 있다.

1) <大卜掌三兆之法……掌三易之法 一曰連山二曰歸藏三曰周易>

《周禮正義》卷四十七, 臺灣中華書局印行, 中華民國 57.

2) 「易道深矣人更三聖」「世歷三古」《中國歷代藝文志》<漢書藝文志>, 上海大光書局刊印, 中華民國 二十五年.

君子는 가만히 그쳐 있을 때는 卦爻의 象徴을 보고 卦爻辭를 玩味하고 움직일 때 곧 行動할 때는 卦爻의 變化를 보아서 그 結果 吉凶의 占斷을 즐긴다.

易의 가르침에 따르면 재난을 免하고 일이 成就되어 「自天祐之하여 吉无不利」³⁾라 할 것이므로 繫辭傳에 「周易책(易之爲書) 또는 易書로서의 本質은 人生日用에서 먼 것이 아니므로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되며 곁에 두어야 한다」⁴⁾고 하고 있다. 「易의 道는 빈번하게 變動한다. 끊임없이 變動하여 한군데 머무는 일이 없고 卦의 六位를 고루 流通하여 卦의 位를 오르내려서 剛이 柔로 柔가 剛으로 바뀐다. 여기서 부터 一定한 不變의 法則을 끄집어 낼 수는 없다. 오직 陰陽의 變化의 進行에 맡길 수 밖에 없다」⁵⁾고도 한다. 그런데 「周易책 또는 易書로서의 本質은 일(物)의 始初에 溯及해서 推窮해서 일(物)의 마침(終)을 要約해서 그 일(事)에 一貫하여 흐르고 있는 道理를 총괄하여 全卦의 體로 한다. 卦辭가 그것이다. 어떤 卦라도 하나의 卦의 始初 곧 初爻에서 일(事)의 根源을 推窮하여 하나의 卦의 끝 곧 上爻에서 일(事)의 終末을 매듭지어 始初(初爻)에서 위로가는 하나의 卦의 道理를 총괄하여 卦辭에서 말하고 그것을 그 卦의 本質로 하고 있다」⁶⁾고 할 것이다. 《易》은 《周易》 그리고 《易經》이라 하거니와 易은 廣大한 것이다. 易의 能力이 미치는 範圍에 관해서 먼 곳은 거리낌 없이(不禦) 무한하게 멀리 퍼진다. 가까운 데를 말하면 움직이지 않아도(靜) 對象에 관한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天地間의 일에 관해서 말하면 天地間에 存在하는 萬象이 모두 易속에 具備되어 있다.⁷⁾ 易에는 三義가 있다. 易簡, 變易, 不易이 그것이다.

첫째 易簡은 繫辭傳에 「乾以易知오 坤以簡能」⁸⁾이라 하고 있다. 乾은 창조 의 일, 坤은 完成의 일을 하는 것인데 乾은 매우 쉽게 거리낌 없이 아무런 困難이 없다. 곧 私心이 없기에 事物을 창조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이 創業의 大業이 이루어진다. 坤은 매우 簡單하고 대범하여 사소한 번잡함이 없다.

坤은 乾을 잘 받아서 거스림이 없으니 完成을 成功해 마칠 수 있다. 人間行爲도 乾德처럼 平易하면 누구나 알기 쉽고 坤의 德처럼 簡略하면 누구나 따르기(從) 쉽다. 「乾以易知」란 「乾은 쉽게 大始를 말한다」는 것이며 「坤以簡能」이란 坤의 德은 柔順이다. 오직 乾에 따라(從) 도울뿐 自發的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3)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動則觀其變而玩其占是以自天祐之吉无不利(繫辭上傳) 第二章.

4) 易之爲書也不可遠(繫辭下傳 第8章).

5) 「爲道也屢遷變動不居周流六虛上下无常剛柔相易不可爲典要唯變所適」(繫辭下傳, 第八章).

6) 「易之爲書也原始要終以爲質也六爻相雜唯其時物也」(上同).

7) 夫易廣大矣以言乎遠則不禦以言乎邇則靜而正以言乎天地之間則備矣(繫辭上傳, 第六章).

8) 繫辭上傳, 第一章.

이 順應性을 簡, 簡易, 簡能이라 한다.

坤이 萬物을 作成할 수 있는 것이 이 簡의 性格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乾以易知」와 「坤以簡能」의 差異는 自發的 行爲와 結果的 効用的 差異이다.

人間行爲도 그 뿌리는 마음(心)이다.

그 마음(心)을 알기 쉬우면 同心하여 親하는 者가 절로 증가하고 그 命令이 따르기(從) 쉬우므로 協力者가 많기 때문에 功績이 쌓인다. 다른 사람에게 親함이 있으면 危害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存續될 수 있다. 功績이 쌓이면 주위 사람들이 悅服하여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것은 보통사람 보다 어진(賢) 사람만이 可能한 것이다.

곧 永遠한 存續은 賢人으로서의 德이 있어야 可能하다. 커지는 것은 賢人으로서의 業이다. 德은 안(內)에 體得한 것, 業은 外界에 發展한 事業이다.⁹⁾ 누구든 賢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儒學의 重要的 思想의 하나이다. 그래서 「易簡而天下之理得矣天下之理得而成位乎其中矣」¹⁰⁾라 하고 있다. 이 뜻은 「乾의 「易」와 坤의 「簡」 곧 「易簡」의 德을 體得하면 天下의 道理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天下의 道理를 얻어 天位와 地位의 中間에 人間의 位를 차지할 수 있다. 天地와 더불어 나란히 天人地를 이루는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易簡의 德을 體得하면 벌써 勞心焦思함이 없이 天下의 道理를 窮究할 수 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위의 賢人은 벌써 聖人이다. 하늘(天)과 땅(地)의 位 中間에서 天과 地와 나란히 하는 사람(人)의 位를 차지하게 된다. 곧 天地人의 三才로써 天地造化의 功을 도우게 된다. 天地人이 三才의 體이고 天人地가 三才의 用이다. 해는 東쪽에 떠서 西쪽에 진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

父母, 子息은 親함이 있다. 父母는 子女를 愛而教之하고 子女는 孝而諫하는 것은 易簡이다. 簡單한 것은 複雜한 것의 시작이다. 8卦, 64卦, 384爻를 갖고 萬象을 설명하는데 그 根本은 陰陽二爻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易之爲書는 이와같은 天地의 道理를 나타낸다. 둘째로 易은 變易의 뜻이 있다.

宇宙萬象에 變化하지 않는 것이 없다. 流動變遷生成消滅, 行雲流水寒來暑往, 盈虛消長, 榮枯盛衰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變易이다. 셋째로 易의 뜻은 不易이다.

9) 「易則易知簡則易從易知則有親易從則有功有親則可久有功則可大可久則賢人之德可大則賢之業」(繫辭上傳, 第一章)

亞山先生, 《周易講義》 및 《備旨具解周易原本》.

高 亨, 《周易古經今注》.

本田濟, 《易》.

鈴木田次郎, 《易經》.

高田貞治, 《易經》等 參照.

10) 繫辭上傳, 第一章.

위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宇宙萬象은 複雜한 變化이다. 이 無限하고도 無窮한 變化錯綜한 現象 속에서 不變의 道理가 있다. 流水相은 同一하나 흘러간 물은 되돌아 오지 않는다. 生死의 個人은 다르지만 生死의 現象은 끊임없고 집에 父子, 夫婦, 兄弟가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不易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變易과 不易의 두가지 뜻은 矛盾되는 것 같으면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萬象의 變化도 同時에 無限한 複雜性을 수반하지만 곧 易簡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그 複雜한 變化속에 易簡의 道理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要컨대 「易之爲書」 곧 周易책 또는 易書로서의 本質은 廣大悉備하여 모든 道理가 갖추어 있다.

三畫小成卦에 이미 天地人 三才의 道가 갖추어져 있다. 三畫小成卦를 겹치니 六畫이 된다. 한卦에 六箇爻가 있다는 것은 다름아니라 天地人 三才의 道를 나타낸 것이다.¹¹⁾ 이와같이 占筮의 글로써 周易이 儒家에 의해서 經書化되어 義理와 占筮의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 卦爻와 卦爻辭가 統一되고 卦爻는 卦爻辭의 妥當性을 증명하고, 卦爻辭는 卦爻의 正當性을 說明하고 있다.

2. 卦爻와 乾坤의 象

《周易》이나 易書는 陰陽爻로 짜여진 卦가 基礎가 되고 基本이 되어 있다.

陽爻(—)와 陰爻(--)는 陰陽을 象徵한다. 그러나 이 두 爻만으로 天地間의 物

11) 鈴木田次郎 著, 《易經上》, <易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天)이 人間의 吉凶禍福을 관장하고 있다는 一種의 宗教의 天道觀이 人間生活을 支配하고 있던 中國古代에 發生한 易占은 완전히 神祕的인 呪術的인 方術로 古代人은 이 易占을 通하여 天(神)의 意志를 묻고 그것으로 日常行動을 決定한 것이다. 이 原始的인 占筮는 매우 素朴한 것이었을 것이다. 곧 64卦 384爻의 組織이 정비되고 卦名, 卦辭, 爻辭가 繫屬되어 오늘날 보는 偉大한 易의 組織體系가 成立한 것이다. 易의 數의 組織이 매우 抽象的이며 數를 다루는 것이 매우 理智的이다. 오히려 數의 形而上學이라 부를 만하다. 占의 本質은 神祕的인 呪術임에도 不拘하고 易은 神祕的인 呪術性이 희박해졌어(呪術로서의 易은 오히려 《後漢書》 方術傳에 볼 수 있는 雜占으로 흘러갔다.) 論理的인 色彩가 농후하다. 뒤에 學者 특히 儒家系의 學者들에 의해 해석되고 理論이 附加되어(해석 이론을 총칭하여 十翼이라 한다.) 易은 여기서 사람으로 하여금 改過遷善시키는 책, 번민하는 人間을 하여금 勇氣를 가지게 하고 올바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강술하는 책이 됐다. ……易이 이같이 발전한 背景에는 思想界의 변천이 있었다.

中國古代의 天이 人間世界를 支配한다고 생각하는 宗教的인 天道觀은 春秋時代에는 자취를 감추고 이에 대신하여 天文曆數家에 의해서 宇宙天地間에 陰陽二氣에 의한 消長變化가 끊임없이 行하여져 天道란 그와같은 抽象的인 法則 體라는 것이 發見되어 이같은 自然哲學的인 陰陽的인 天道觀이 대두해 왔다. 그래서 이 陰陽의 消長變化라는 新天道觀의 出現에 의해서 戰國末부터 秦漢時代에 걸치는 人間生活의 秩序를 宇宙自然界의 法則에 求하는 天人統一觀이 思想界를 支配하였다. 이같은 風氣속에서 陰陽의 天人統一觀이 易에 훌륭히 開花시킨 것이 十翼의 著者들이다.」(同書 p. 26)

象을 象徵할 수 없다. 그러므로 卦가 있어야 한다. 卦는 건다(掛)는 뜻이다. 여기에 物象을 걸어서(掛) 보인다(示) 그러나 8卦는 天地間의 萬物을 象徵할 수는 있어도 萬物의 變化를 象徵할 수는 없다. 8卦를 겹쳐서 64卦 384爻가 되었다.¹²⁾ 爻는 본받는다(效)는 뜻이다. 繫辭下傳에 爻也者는 爻此者也라한 것이 그것이다. 또 답는다(倣)는 뜻이다. 爻는 萬物의 象을 본받은 것이다. 退溪는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形象은 있어도) 말이 없었으나 河洛圖書가 나옴으로 부터 聖人이 여기 말미암아 卦爻를 지으니 비로소 道가 天下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漢書藝文志》에는 「易道深矣人更三聖」「世歷三古」라 하였다. 三聖三古란 上古에는 伏羲, 中古에는 文王·周公, 近古에는 孔子를 가르킨다. 伏羲가 처음 8卦를 지은 것은 繫辭上傳에 「易에는 陰陽이 아직 發生하기 以前의 근원인 太極이 있어 太極으로부터 陰陽의 兩儀가 생기고 兩儀는 四象, 四象은 8卦를 생기게 했다」고 하고 있다. 곧 伏羲8卦次序之圖에서 알 수 있거니와 그림은 다음 <圖 1>¹³⁾과 같다.

<圖 1> 伏羲八卦次序之圖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八卦
太陽		少陰		少陽		太陰		四象
陽				陰				兩儀
太極								

「이 8卦의 짜임으로 萬事의 吉凶이 定해진다. 이 吉凶에 커다란 事業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萬物이 표준이 될 物象으로서는 天地보다 더 큰 것이 없고 變化와

12) 《周易傳義大全》庚辰新刊 內閣藏板.
 上同, 《諺解》, 庚辰新刊 內閣藏板.
 《備旨具解原本周易》, 朝鮮圖書 株式會社, 1923.
 《正本集註周易》, 誠文社 刊, 1917.
 《亞山先生講論, 周易講義上, 中, 下》, 1986.
 高 亨, 《周易古經今注》, 中華書局, 1984.
 高 民, 《先秦易學史》, 精華印書館, 中華民國 64.
 高田眞治 外 1人, 《易經》, 上, 下, 岩波書店, 1975.
 本田濟, 《易》, 上, 下, 朝日新聞社, 1978.
 鈴木由次郎, 《易經》, 上, 下, 集英社, 1983.
 金谷治, 《易の話》, 1972, 參照.
 13) 圖 1은 前掲 《周易傳義大全》에 의함.

流通의 物象은 四時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하늘에 걸쳐있는 物象의 뛰어난 밝음은 日月보다 더 큰 것이 없고 人間에 있어서 地位가 높은 것은 富貴兼全한 君王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또 人間에 必要한 모든 것을 具備하여 그 効用을 극대화 하고 完成한 器物을 製作하여 天下에 利益이 되고 편리하게 한 것은 聖人보다 더 큰 것이 없다.

錯雜한 事象을 탐구하여 隱微한 事理를 求하여 깊숙히 있는 것을 낚아(釣) 올리고 먼데 있는 것을 멍겨왔어 天下의 吉凶을 定하고 天下의 모든 사람을 부지런히 힘쓰게 하는 데에는 蓍草·龜甲과 같은 神祕한 것을 있게(有) 한 것을 法삼아 聖人은 卜筮術을 시작한 것이며 天地가 陰陽의 二氣의 變化에 의해서 萬物을 生成 發展시킨 事實을 본받아서 聖人은 易의 原理를 세운 것이다. 하늘(天)이 여러가지 自然現象에 의해서 吉凶을 나타내는 사실에 象徵하여 聖人은 易에 吉凶判斷을 설치하였다. 옛적 黃河에서 나온 龍馬의 등의 무늬를 보고 判讀한 河圖(文字가 使用되지 않을 때)와 洛水에서 나온 神龜의 등의 무늬에서 읽은 洛書(文字를 使用한 때 書)를 본떠서 聖인이 八卦를 지었다.¹⁴⁾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聖인이 河圖를 받아 八卦를 지었다. 또 繫辭下傳에 「옛적 包犧氏가 天下에 임금질 할때 우르러 하늘의 日月같은 것에 象徵을 보고(仰則觀象於天) 꾸부러서는 땅의 山澤등에서 본을 떠 鳥獸의 것이나 털의 무늬와 각각 그 땅에 마땅한 草木金石등을 관찰하고 가까운데에서는 身體의 部分, 눈이나 입으로 부터, 먼데에서는 우뢰(雷)나 바람(風)에서 祖型을 떠서 비로소 八卦를 지어 이것을 가지고 造化의 神의 德과 通하여서 萬物의 實狀을 類型化하여 보였다(示). 神의 德이란 健, 順, 動, 止 등의 作用을 뜻하는 바 그것은 그대로 八卦의 卦德이다. 萬物의 實상을 類型化하여 보였다는 것은 ☲가 火를 象徵하고 ☵은 水를 象徵하는 것과 같다.¹⁵⁾

說卦傳에는 「옛적 聖인이 易을 지을때 神은 人間의 吉凶을 미리 알지만 人間에 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神을 가만히 도와서 蓍草를 사용하여 人間의 吉凶을 占치는 占筮의 方法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1, 2, 3, 4, 5의 生數 가운데 1, 3, 5의 셋 홀수를 天數로 하고 2, 4의 둘 짝수를 地數로 하여 1, 3, 5가 九가 되어 이것을 老陽으로 하고, 2, 4가 六이 되어 老陰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易의 變化를 있게 하

14)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是故法象莫大乎天地變通莫大乎四時縣象著明莫大乎日月崇高莫大乎富貴備物致用立成器以爲天下利莫大乎聖人探頤索隱鉤深致遠以定天下之吉凶成天下之亹亹者莫大乎蓍龜是故天生神物聖人則之天地變化聖人效之天垂象見吉凶聖人象之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繫辭上傳, 第十一章)

前掲高田眞治《易經》下 參照.

15)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繫辭下傳, 第二章)

前掲《易》下, 參照.

였다. 그래서 8卦에는 陰陽의 變動이 있다. 陽이 陰으로 變하고 陰이 陽으로 變하는 것을 보고 64卦를 지었다. 또 陽과 陰을 剛爻, 柔爻로 나타내어 剛爻를 變動하여 柔爻가 생기고 柔爻를 變動해서 剛爻가 생기는 것같이 剛爻와 柔爻가 서로 變動하여 64卦 384爻를 지었다.¹⁶⁾ 要컨대 蓍草를 神靈視하여 8卦 384爻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易의 成立에 관해서 十翼 가운데서도 몇가지 說이 있는바 그 것이 各各 다른 주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伏羲氏가 「始畫八卦」하였다는 데는 異議가 없다.¹⁷⁾ 앞에서도 言及하였거니와 卦는 天地間의 萬物을 象徵한다. 繫辭下傳에는 「八卦成列」하니 「象在其中矣」¹⁸⁾라 하고 있다. 八卦가 整然한 序列에 따라 形成되면 天地間의 萬物의 物象이 다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八卦는 萬物을 象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下傳의 다른 章에서도 「八卦는 象으로써 告한다」¹⁹⁾ 곧 八卦에는 各各 形象이 있는데 八卦는 그 卦의 形象을 가지고 表示한다는 것이다. 天은 乾☰의 象徵이며 地는 坤☷의 象徵이다. 雷는 震☳, 風은 巽☴, 水는 坎☵, 火는 離☲, 山은 艮☶, 澤은 兌☱의 象徵이다. 이와같이 繫辭下傳에는 「象」²⁰⁾은 像이라고 한다. 코끼리 象字는 코끼리의 形象文字인데 想像의 意味가 생긴 것이다. 易의 象은 죽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살아있는 코끼리를 想像할 수 있듯이 八卦와 形象으로써 事物의 實形, 實體에 比擬하여 그것을 想像하는 것이다. 또 繫辭傳上과 下에서 거듭 말하기를 「옛적 作易한 聖人이 天地萬物이 雜亂함을 보고 그 形容에 비기(擬)며 또 그 天地萬物의 갖추어야 할 形象으로 象徵化하여 보인다(示). 이와같이 比擬하고 象徵하기

16) 昔者聖人之作易也幽贊於神明而生蓍參天兩地而倚數觀變於陰陽而立卦發揮於剛柔而生爻……(說卦傳)

鈴木由次郎, 《易經》, 參照.

17) 高田眞治, 《易經》上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原始民族이 呪術을 가지고 神意를 測度한 것은 各國의 原始民族에 通有한 現象이다. 특히 東北 아시아를 中心으로 한 Shaman的 呪術은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各地의 같은 類型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古代에는 巫 또는 巫覡으로서 行하여졌던 것은 現存의 文獻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 巫의 原始的 狀態가 Shamanism에 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卜占도 呪術의 種類에 부쳐서 생각되어야 한다. 이 Shaman的 呪術과 易과의 關係에 易의 成立을 暗示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白鳥清씨의 說에 의하면 左傳이나 史記等에 기록되어 있는 拳龍氏, 御龍氏, 畜龍氏는 雨神龍을 모는(御) 巫祝, 하늘의 精靈을 모는(御) 雨師, 天意를 民衆에 전달하여 하늘의 靈聲을 듣고 알 수 있는 Shaman이라고 생각되었다. 同氏는 또 龍의 本體를 推究하여 龍은 처음에는 하늘에서 서식하여 비(雨)를 맡고 있다고 상상된 精靈 곧 雨神이 時代를 經過함에 따라 祈雨儀式에 쓰인 動物을 模寫하고 드디어 後世의 龍의 모양이 되었다. 御龍氏, 拳龍氏, 畜龍氏라고 하는 巫畚은 단순히 하늘의 雨神龍과 相通하는 能力을 가졌다고 믿는 爬虫類를 실제로 기르고 있던 巫祝이라고 하고 있다. 이 說은 易의 成立에 매우 흥미있는 示唆을 하고 있다.」 同書, pp. 16~17.

18) 繫辭下傳, 第一章.

19) 「八卦以象告……」(繫辭下傳, 第十二章).

20) 「是故易者象也 象也者像也」(繫辭下傳, 第二章)

21) 「聖人有以見天下之赜而擬諸其形容象其物宜是故謂之象」(繫辭上傳 第八章) 같은 內容이 繫辭上傳, 第十二章에도 나온다.

때문에 象이라 한다」²¹⁾고 하고 있다. 위와같이 「象」은 「像」「擬」라 하였는데 想像, 象徴, 比擬의 뜻이다. 八卦의 八象은 正象이지만 이 象의 범위가 擴大되어 象의 數가 늘어났다. 說卦傳에 「乾健也坤順也」²²⁾라 하고 있는데 乾卦는 三爻 모두가 陽이다. 陽剛은 움직여 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健이며 健은 剛健이다. 坤卦는 三爻가 모두 陰이다. 陰柔는 조용히 陽에 따르면(從) 順이다. 順은 柔順이다. 또 「乾爲馬坤爲牛」²³⁾라 하였다. 말(馬)은 健壯한 다리로 멀리간다. 그러므로 乾의 象을 말(馬)에서 取하고 소(牛)는 柔順하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른다.

그러므로 坤의 象을 소(牛)에서 取한다. 또 「乾爲首坤爲腹」²⁴⁾이라 하고 있는데 乾卦는 純陽이다. 머리(首)는 衆陽이 모이는 곳이며 둥근 모양으로 人體의 최상부에 있다. 그러므로 乾의 象이 머리(首)이다. 坤卦는 純陰이다. 배(腹)는 衆陰을 거두어 두는 곳이며 어려움없이 잘 包容하므로 坤의 象을 배(腹)에서 取한다.

또 「乾天也故稱乎父坤地也稱乎母」²⁵⁾라 하고 있는데 乾卦는 純陽으로 하늘(天)에 取象하고 坤卦는 純陰으로 땅에 取象한다. 그러므로 天地는 父母에 相當한다. 父母는 小天地이며 天地는 大父母이다. 또 「乾의 象」으로 「天, 圓, 君, 父, 王, 金, 寒, 氷, 大赤, 良馬, 老馬, 瘠馬, 駁馬, 木果」²⁶⁾를 舉列하고, 節齋蔡氏는 말하기를

22) 說卦傳, 第七章.

23) 上同, 第八章.

24) 上同, 第九章.

25) 上同, 第十章.

26) 「乾爲天爲圓爲君爲父爲玉爲金爲寒爲氷爲大赤爲良馬爲老馬爲瘠爲馬爲駁馬爲木果」(說卦傳, 第十一章).

여기에 前掲, 鈴木由次郎, 《易經》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乾의 象은 天인데 天은 積陽하여 위(上)에 있고 至健, 純陽, 乾道가 크고 끝이 없는 데서 取象하였고, 또 乾의 象은 圓이다. 둥근 것은 運轉하여 그침이 없다. 天道가 運行하여 그치지 아니한데서 取象한 것이다. 그러므로 圓을 乾天의 象으로 한다. 또 乾의 象은 임금(君)이다. 임금은 萬民을 다스림으로 乾이 萬物을 통괄하는 데에서 取象하였다. 그래서 임금(君)은 乾의 象이다. 이 乾의 元을 取하여 始作하는데 取象한다. 또 乾의 象은 구슬(玉)이다. 구슬은 그 質이 가장 純粹하여 乾의 純陽인데서 取象한다. 또 乾의 象은 金이다. 金의 質이 가장 堅剛하니 乾의 剛健에서 取象한다. 또 乾의 象은 寒이다. 乾은 後无方位로 西北方이다. 立冬, 寒氣가 嚴하다. 그러므로 寒을 乾의 象으로 한다. 또 얼음(氷)은 立冬節에 물이 처음으로 얼어 땅이 처음 언다. 그러므로 얼음(氷)이 乾의 象이 된다. 또 大赤은 盛陽의 색깔이 크게 붉은(赤) 것이다. 乾은 純陽임으로 大赤을 乾의 象으로 한다. 또 良馬는 乾의 健이며 말(馬)의 象이 있다. 良은 純陽이며 健의 最上의 것이다. 乾의 純陽에 取象한다. 또 馬는 老陽에 取象한다. 老馬는 健最長久의 것이다. 곧 늙으려 하는 말이다. 또 瘠馬는 뼈대가 건장한 말(馬)이다. 乾은 純陽이다. 瘠馬는 뼈대가 건장하고 많이 드러나 있음으로 乾에 取象한다. 또 駁馬는 털 색깔이 不純한 말이다. 乾道는 變化한다. 그러므로 털 색깔이 不純한 말에 取象한다. 또 木果는 나무에 열린 果實이다. 果實은 陽功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果實의 씨앗이 땅속에 묻히어 또 싹이 난다. 乾의 元이 마치고(終) 또 始作하는데 取象한 것. (同 p. 444)

「積陽이 天이 된다. 陽體가 動하면 圓이 된다. 尊(尊)고 위에 있으니 君이 된다. 둥글고 위에 있으니 木果가 된다.」고 한다. 沙隨程氏는 말하기를 圓은 天의 體라 하였다.

또 君은 위에 있어 밑(下)을 덮는다. 玉이 되는 것은 德이 純粹하다. 金이 되는 것은 堅剛하고 寒이 되는 것은 方位가 西北이다. 얼음이 되는 것은 寒의 凝結이다. 大赤이 되는 것은 盛大한 陽의 색깔이다. 木果가 되는 것은 果實로써 씨앗을 심어 있는다. ……平庵項氏는 말하였다. 곧 良馬의 德은 더 加할 것이 없다. ……老馬는 智가 最高이다. 馬은 筋骨이 至峻하다. ……駁馬는 색깔이 不純하다. 或은 말하기를 純極이 駁이 생긴다」²⁷⁾는 것이다. 또 坤卦의 象으로 「地, 母, 布, 釜, 吝嗇, 均, 子母牛, 大輿, 文, 衆, 柄, 땅(地)에 있어서 黑」²⁸⁾을 列舉하고 있다. 進齋徐氏는 말하기를 「坤은 陰이 싸여(積陰) 밑에(下) 있음으로 坤의 象은 땅(地)이라는 것」²⁹⁾이다. 或은 「積陰하여 밑에 있고 至順, 純陰, 坤道의 柔順至靜에 본뜬다」³⁰⁾고도 한다. 또 坤은 「物質을 生産함으로 어머니(母)를 取象」³¹⁾하고 「어머니(母)는 아이를 養育한다. 坤元은 萬物이 資生하고 順이 承天함」으로 어머니가 坤의 取象한 것이 된다.³²⁾ 또 坤은 「布」를 取象하는데 坤은 「움직여 열면(闢) 넓으니까」³³⁾ 혹은 布는 「부드럽고 넓고 平平하다. 坤地가 넓이 萬物을 실어(載) 기루는 것에서 布를 取象했다」³⁴⁾는 것이다.

또 坤은 술(釜)을 取象하는데 술(釜)은 「비어서 容物하니까」³⁵⁾ 或은 「술에 삶은 것을 넣어서 삶는다. 乾은 生하고 坤은 化한다. 술이 삶는 것은 坤이 化하는데 본뜬것」이다. 또 吝嗇을 取象하는데 「조용히 모으고 베풀지 아니함으로 吝嗇이 된다」³⁶⁾ 혹은 「물건을 내놓기를 꺼려 備畜한다. 坤陰의 至靜하고 받아(受)서 베풀지 아니하는데 본뜬다」³⁷⁾ 또 南軒張氏는 말하기를 「均은 그 勢가 均平하니 偏陂

27) 節齋蔡氏曰積陽爲天陽體動爲圓尊而在上爲君圓而在上爲木果沙隨程氏曰爲圓天之體也爲君居上而覆下也爲玉德粹也爲金堅剛也爲寒位西北也爲氷寒之凝也爲大赤盛陽之色也爲木果以實承實也……平庵項氏曰良馬德莫加焉……老馬智最高瘠馬筋骨至峻……鄱陽黃氏曰……駁馬色不純或曰純極而駁生焉(《周易傳義大全》二十四卷, 說卦傳, 本義條, 庚辰新刊內閣藏板)

28) 「坤爲地爲母爲布爲釜爲吝嗇爲均爲子母牛爲牛爲大輿爲文爲衆爲柄其於地也爲黑」(說卦傳, 第十一章)

29) 「進齋氏曰坤積陰於下故爲地」(《周易傳義大全》二十四卷, 說卦傳, 本義條 庚辰新刊內閣藏板).

30) 鈴木山次郎, 《易經》下, p. 449.

31) 「物資以生故爲母」(說卦傳, 本義條).

32) 彖曰至哉坤元萬物資生乃順承天(坤卦, 彖辭)

33) 「動闢而廣故爲布」(說卦傳, 本義條).

34) 前揭, 《易經》下, p. 449.

35) 「虛而容物故爲釜」(說卦傳, 本義條).

36) 前揭, 《易經》下, p. 449.

37) 靜翁而不施故爲吝嗇(說卦傳, 上同), 36)《易經》上同.

됨이 없다」³⁸⁾ 或은 「均—平等·坤地가 萬物을 生育하여 善惡을 가리지 아니하는 데 본뜬다」³⁹⁾고도 한다. 또 進齋徐氏는 말하기를 「性順함으로 새끼따른 암소(子母牛)가 된다」⁴⁰⁾고 한다. 或은 「소는 性柔順, 송아지와 어미소는 相從하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가장 順하다. 송아지는 어미소가 낳은 것이다. 坤德의 順하고 生産하는데 본뜬다」⁴¹⁾ 또 「두터워 載物하기 때문에 큰가마(大輿)가 된다」⁴²⁾ 或은 大輿는 「커다란 수레, 짐을 잘 싣는다. 坤地가 두텁고 萬物을 싣는데 본뜬다」⁴³⁾고 한다. 또 「坤卦의 晝이 짝수이므로 文이 된다」⁴⁴⁾고 한다. 或은 文은 「무늬이다. 坤地의 萬物相交하여 文彩가 있는데 본뜬다」⁴⁵⁾고도 한다. 또 「짝畫은 많으므로 衆이 된다」⁴⁶⁾고 한다. 或은 衆은 「群衆, 셋이면 群이라 한다. 陰을 民으로 한다. 坤卦는 三陰이 相從한다. 그러므로 坤의 象을 衆으로 한다」⁴⁷⁾고 한다. 또 「形體가 있어 잡을 수 있으므로 자루(柄)가 된다」⁴⁸⁾고 한다. 或은 柄은 「받을때 손으로 잡는 곳. 天은 無形으로 物件을 잡을 수 없지만 坤地가 밑에 있어 物件을 싣고 있으니 자루(柄)가 되는데 본뜬다」⁴⁹⁾ 또 「純陰임으로 색깔에 있어서 黑이 된다」⁵⁰⁾고 하며 或은 땅의 黑은 「黑土이다. 黑土는 땅이 肥沃해서 잘 物產한다. 黑은 極陰의 색깔, 坤의 象은 땅(地)인데 땅은 五色이 있고 이 가운데 黑土를 坤의 象으로 한다」⁵¹⁾는 것이다.

어쨌든 易의 筮法, 卦爻의 쓰임은 無心이며 조작이 아니다. 未來를 豫知하지만 無心으로 한다. 成卦하여 吉凶의 象을 定하지만 作爲해서가 아니다. 寂然하여 그 自體는 不動이지만 묻는 사람의 意向은 冥冥리에 卦에 感應하여 天下萬事에 대해서 딱맞는 答을 얻을 수 있다. 天下의 가장 神스러운 것이 아니면 이와같은 境地에는 參與할 수 없다⁵²⁾고 하겠다. 易에는 聖人の 道가 넷이 있다. 易을 使用하여

38) 南軒張氏曰均者其勢均乎而无徧陂者也(說卦傳, 上同).

39) 《易經》上同.

40) 性順故爲子母牛(說卦傳, 上同).

41) 前揭, 《易經》下, p. 450.

42) 厚而載物故爲大輿(說卦傳, 上同).

43) 《易經》上同.

44) 坤晝偶故爲文(說卦傳, 上同).

45) 《易經》上同.

46) 偶畫多故爲衆(說卦傳, 上同).

47) 《易經》上同.

48) 有形可執故爲柄(說卦傳, 上同).

49) 《易經》上同.

50) 純陰故於色爲黑(說啓傳, 上同).

51) 《易經》上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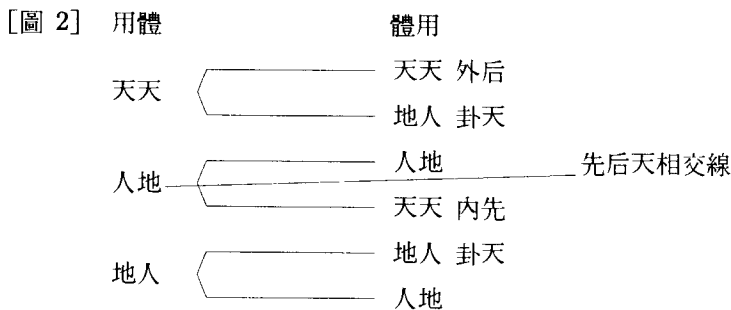
52) 易无思也无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非天下之至神其孰能與於此(繫辭上傳, 第十一章).

吉凶의 道理를 가지고 教導하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者는 卦·爻辭를 존중하고 易을 가지고 行動하려는 者는 易의 變化를 존중한다. 易을 보고 어떤 그릇을 만 들고자 하는 者는 卦象을 존중하고 卜筮者는 易의 占斷을 遵奉하는 것이 좋다.⁵³⁾

繫辭傳에는 「聖人이 設卦하고 卦爻에 나타난 象徴을 관찰하는데 이것으로도 잘 알 수 없을까 하여 卦爻에 卦辭와 爻辭를 각각 부쳐서 將來의 吉凶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지은 卦爻의 剛柔는 서로 推移하여 變化가 생긴다. 곧 剛이 極에 達하면 變하여 柔爻가 되고 柔가 極에 達하면 變하여 剛爻가 된다. 이 陰陽의 變化가 卜筮의 경우 卦를 짓는 법을 規定하고 또 聖人이 말(辭)을 부치는 이유이다. 陰陽의 變化는 동시에 天道의 變化와 人事의 變化를 나타낸다. 때문에 聖人은 卦爻에 나타난 吉·凶·悔·吝의 말(辭)을 부친다. 吉·凶이란 일의 吉凶의 象徴이다. 悔吝은 凶까지는 아니지만 근심 걱정을 象徴한다. 悔는 後悔, 처음은 나쁘고 나중에는 괜찮다. 吝은 인색, 수치스러운 것으로 처음은 괜찮다가 나중에 나쁘게 되는 것이다. 吉凶悔吝은 四季節 처럼 내내 순환한다. 卦爻의 剛柔의 變化란 人事의 進退를 象徴한다. 곧 柔爻가 剛爻로 變하는 것은 물러감(退) 極에 이르러 나아감(進)을 나타내며 剛이 柔로 變하는 것은 나아감(進)이 極에 이르러 물러감(退)을 나타낸다. 變化하여 剛爻柔爻가 되면 天時의 晝夜, 人間行動에 있어서 動靜을 象徴한다. 六爻의 움직임은 三才의 道 곧 天의 災異와 祥瑞, 地의 險難과 平坦, 人事의 吉凶을 明示한다.」⁵⁴⁾는 것이다.

Ⅲ. 乾坤卦의 卦·爻辭

1. 乾卦의 卦·爻辭



53) 易有聖人之道四焉以言者尙其辭以動者尙其變以制器者尙其象以卜筮者尙其占 (繫辭上傳, 第十一章)

亞山先生講述《周易》下.

本田齊《易》下.

鈴木由次郎《易經》下 等 參照.

54) 聖人設卦觀象繫辭焉而明吉凶剛柔相推而生變化是故吉凶者失得之象也悔吝者憂虞之象也變化者進退之象也剛柔者晝夜之象也六爻之動三極之道也 (繫辭上傳, 第二章)

重天乾卦이다. 上述한 바와같이 「乾의 象은 乾」(乾爲天, 說卦傳)이다. 程子は 「上古의 聖人이 처음 八卦를 지으니 三才之道가 갖추어 있다. 이를 말미암아 거듭하니 天下의 變化를 다함으로 六畫의 卦가 이루어진다. (小成卦가 大成卦가 된다) 重天이 乾이 된다. 乾은 天이다. 天이란 하늘(天)의 形態이고 乾은 하늘(天)의 性情이다.⁵⁵⁾ 朱子는 「乾은 天의 象」⁵⁶⁾(乾之名天之象)이라고 한다. [圖 2]은 天地人三才思想이 나타나 있다. 八卦는 天地間萬物을 象徵할 수 있으나 萬物의 變化를 象徵할 수 없다. 卦辭는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하니라」이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卦爻의 象으로 관찰하는데 이것으로도 잘 알 수 없을까 하여 卦·爻辭를 부쳐서 將來의 吉凶을 밝혔다(聖人設卦觀象繫辭焉而明吉凶)」고 하고 있다. 乾卦는 6爻가 다 陽爻이다.

說卦傳에 「乾健也坤順也」⁵⁷⁾라 하고 있는데 <傳>에는 씩씩해서 쉼이 없는(无息) 것을 乾이라고 말한다⁵⁸⁾고 한다. 雜卦傳에 「乾剛坤柔」라고 하고 있다. 質的으로 말하면 乾은 剛하다는 것이다. 健은 乾卦의 卦德이다. 要컨대 重天乾卦는 純陽卦이며 陽의 性質은 지극한 剛健이며 乾卦는 天을 본뜬 것이다. 乾卦는 天을 象徵한 것이니 乾爲天이라 한다. 「乾元亨利貞」은 乾卦의 卦辭이다.

元은 二와 儿로 된 字인데 上의 一은 天을 形象하고 下의 一은 地, 儿은 植物의 뿌리를 象徵한다. 그러므로 봄(春)의 性情, 生命의 始發을 말한 것이다. 亨은 땅 위에 植物의 싹이 올라온 狀態이다. 올라 올 때는 입을 벌리니 口로 象形하고 未成熟하여 成長하는 도중이 了이다. 무럭 무럭 자라나는 여름(夏)의 性情을 象徵한 것이다. 利는 禾(나락)을 칼(刀)로 벤다. 가을(秋)의 性情을 象形한 것이다. 貞은 卜 곡식의 눈을 못올라오게 막아두는 象形이다. 이것을 하는 것은 사람(人)이다. 간직하는 것도 사람이다. 얻어진 것이 明年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눈이 必要하다. 元亨利貞을 乾의 四德이라고 하여 程子는 「元은 萬物의 시작이며 亨은 萬物의 자라남이며 利는 萬物의 이룸(遂成就從志) 貞은 萬物의 이룬 것(成)⁵⁹⁾이라 한다. 朱子는 彖辭라 하고 「元大也亨通也利宜也貞正而固」⁶⁰⁾라 한다.

初爻의 爻辭는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이다. 程子는 「下爻가 初九이다. 九는 陽數의 盛함이므로 陽爻라고 한다. 道理는 形體가 없음으로 象을 빌려 義理를 나타낸다. 乾은 龍으로써 象으로 한다. 龍은 靈變不測임으로 乾道變化의 象徵

55) 上古聖人始劃八卦三才之道備矣因而重之以盡天下之變故六劃而成卦重乾爲乾乾天也天者天之形態乾者天之性情(《周易傳義大全卷之一》乾元亨利貞, 傳條, 庚辰新刊內閣藏).

56) 上同

57) 乾健也(說卦傳 第七章).

58) 註 56)과 같음.

59) 《周易傳義大全卷之一》傳條.) 元者萬物之始亨者萬物之長利者萬物之遂貞者萬物之成.

60) 上揭書, 本義條.

으로 한다」⁶¹⁾고 한다. 잠긴 龍(潛龍)이니 쓰지 말아라. 乾卦의 初九의 象은 潛龍이다. 繫辭上傳에 「君子所居而安者易之序也」⁶²⁾ 곧 易의 吉凶은 人事의 得失을 明白히 하며 易의 變化는 人事의 進退를 明白히 함으로 君子는 易象을 보고 편안히 있을 수 있을 곳을 알게 된다. 있을 곳에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은 易의 爻의 位를 보고 그 道理에 따르기(從) 때문이다. 乾卦의 初爻는 潛龍이니 「勿用」에 편안히 있어야 한다. 九二의 爻辭는 「九二는 見龍在田이니 利見大人이니라」이다. 見龍在田이 象이다. 潛龍이 地上에 出現한 象이다. 大人은 九五를 가르킨다는 說과 九二를 가르킨다는 說이 있다. 文言傳에 의하면 大人은 九二라는 說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九五를 가르킨다고 본다. 九二는 得中하였다. 九三의 爻辭는 「九三은 君子終日乾乾하야 夕惕若하면 厲无咎리라」이다. 九三은 乾의 德이 있고 人位에 있는 君子의 象이다. 그러나 三位는 下卦의 제일 위에 있어 上卦와의 變함에 즈음하고 있다. 이른바 先天의 마지막에 있는 어려운 자리(位)에 있다. 그러므로 君子가 있을 곳은 「日乾夕惕」이다. 九四의 爻辭는 「九四는 或躍在淵하면 无咎리라」或뛰거나 못(淵)에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九四는 陽爻이다.

四位는 陰의 位이다. 따라서 九四는 不正이다. 陽은 나아감(進)을 맡고(司) 陰은 물러감(退)을 맡는다. 그러므로 九四는 進退가 未決定의 때이다. 또 九四는 上卦의 제일 밑에 있다. 上卦에 있어서 나아가고(進) 저하나 제일 밑에 있으니 반드시 나아가지 아니한다. 이것 역시 進退가 未定일 때이다. 上下卦를 보면 九四는 下卦를 離脫하여 겨우 上卦에 들어갔으니 改革할 때이다. 이것 또한 進退未定의 때이다. 이것이 九四의 爻象이다. 그러므로 龍은 하늘을 날고저하여 뛰는 일이 있지만 아직 하늘을 날 때가 아니다. 생각을 고쳐 물러가 처음의 못(淵)에 머물러 조용히 뒷날을 기약하여 德을 기르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대저 二爻와 四爻에 관해서 繫辭傳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二爻와 四爻는 다같이 陰位의 爻이다. 그 能力은 같지마는 位가 다르다. 二位는 下卦에 있어 五位의 君主에 멀러 떨어져 있고 四位는 上卦에 있어 五位의 君主에 가깝다. 따라서 그 善德도 서로 다르다. 二位는 得中하여 기림(譽)을 받는 일이 많지만 四位는 恐懼戒慎할 일이 많다. 四位는 位가 높고 五位의 君主에 너무 接近하고 있기 때문이다. 陰柔한 者는 힘이 弱하니 남에게 기대어 自立하는 것이다. 二位의 陰柔는 下卦에 있어 五位의 君主에 멀고 直接君主에게 기대 수 없기 때문에 不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柔順한 道를 쓰고 下卦의 得中으로 中庸의 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三位의 爻와 五位의 爻는 다같이 陽位로 그 能

61) 下爻爲初九陽數之盛故以名陽爻理无形也故假象以顯義乾以龍爲象龍之爲物靈變不測故以象乾道變化……(上揭書, 初九, 傳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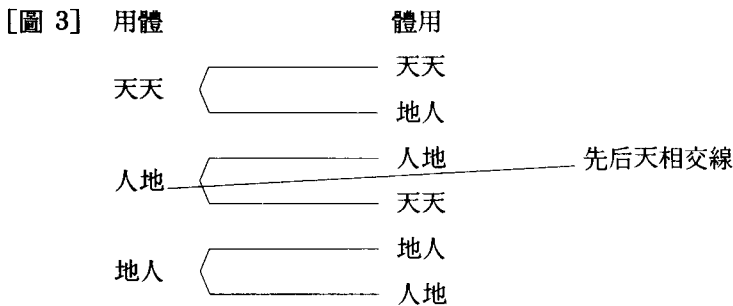
62) 繫辭上傳, 第二章.

力은 같지만 位가 다르다. 三位의 爻는 下卦에 있고 臣下의 位이며 下卦의 맨 위에 있어 得中하지 못하여 問責당하여 凶이 많다. 五位는 君主의 位로 身分이 貴하고 得中하고 있어 功績이 많다. 이와같이 三位와 五位에 吉凶의 차이가 있는 것은 貴賤의 差異 때문이다. 그러나 三位와 五位도 만약 柔爻이면 弱한 陰柔가 陽位에 있으니 不正이며 危險하다. 이에 反해서 三位와 五位가 陽爻라면 剛健한 陽剛이 陽位에 있게되니 得正이 되어 災難을 극복할 수 있다.⁶³⁾고 하겠다. 九五의 爻辭는 「九五는 飛龍在天이니 利見大人이니라」이다. 程子は 「天位를 얻으면 밑에 있는 大德之人을 보는 것이 利롭다」⁶⁴⁾고 한다. 九五는 上卦에서 得中하고 또 得正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九五는 剛健中正의 有德한 大人이 天子의 位에 있는 象이다. 在下의 大德之人을 보는 것이 利롭다. 이를테면 劉邦이 제갈양 보는 것이 利롭다.

上九의 爻辭는 「上九는 亢龍이니 有悔리라」이다. 上九는 지나치게 높이가 나아가 나아가갈줄만 알고 물러갈줄 모르는 龍의 象이다. 繫辭傳에는 이에 관해서 「亢龍이니 有悔라 하니 子曰歸而無位하며 高而無民하며 賢人이 在下位而無輔라 是以動而有悔也니라」⁶⁵⁾고 하고 있다. 乾卦上九의 爻辭에 「亢龍이니 有悔라」는 것은 子 말씀하시되 上九는 乾卦의 제일 위의 爻로 天子의 位인 九五위에 있는데 隱居하는 몸으로 實權이 없고 不正의 位이다.

勢力이 다하여 衰殘하려는 象이다. 그 地位는 높지만 밑에 心服하고 順從하는 民이 없다. 밑에 九三과 같은 得正한 賢人이지만 九三과의 관계는 正應이 아니다. 이 賢人은 上九爻를 도울 수 없다. 부질없이 動하면 後悔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2. 坤卦의 卦 · 爻辭



63) 二與四同功而異位하야 其善이 不同하니 二多譽코 四多懼는 近也일새니 柔之爲道不利遠者긴마는 其要無咎는 其用柔中也일새라. 三與五同功而異位하야 三多凶코 五多功은 貴賤之等也일새니 其柔는 危코 其剛은 勝耶느저」(繫辭下傳, 第九章).

64) 進位乎天位也聖人既得位則利見在下大德之人 (九五爻 傳條).

65) 繫辭上傳, 第八章.

坤卦의 卦辭는 「坤은 元코, 亨코, 利코, 牝馬之貞이니 君子의 有攸往이니라. 先하면 迷하고 後하면 得하리니 主利하니라. 西南은 得朋이오. 東北은 喪朋이니 安貞하야 吉하니라」이다. 坤卦는 下卦上卦 合하여 六爻 모두 陰이다. 坤卦의 象徵은 땅(地)이다. 坤爲地라고도 한다. 陽은 創造的, 動的인 것이 特徵인데 陰은 守成的, 靜的인 것이 그 特徵이다. 坤卦는 柔順한 性質로써 乾에 順從한다. 이 象으로서 땅(地)은 다만 하늘 기운 곧 빛(光)이나 熱을 받아서 萬物을 化育하여 積極的으로 活動하지 않는다. 坤卦의 象은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地, 順, 臣, 母 등이 다. 牝馬와 같이 柔順하고 쉽없이 힘써 途中에서 變節함이 없으면 좋다. 君子 같바 있느니라. 앞서가면 미혹하고(迷) 뒤따라가면 미혹(迷)되는 일이 없다. 西南은 坤方이니 得朋하고 벗과 함께 協力하면 좋다. 東北은 陽方이니 得朋할 수 없다. 東北方에서는 朋友라는 意識을 버리고 公平하고 忠實하게 牝馬처럼 柔順하게 힘쓰면 吉하다.⁶⁶⁾ 初六의 爻辭는 「初六은 履霜하면 辟氷이 至하느니라」이다. 陰과 陽은 造化의 本源이다. 따라서 다같이 없어서는 안될 存在이다. 陰陽의 消長은 一定한 道理가 있다. 그러나 陽은 生을 맡고 陰은 죽음을 맡는다. 여기에 善惡의 區別이 있게 된다. 陰과 陽이 다같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點에서 陽은 健이고 陰은 順으로 한편에 치우침이 없다. 消長에 즈음해서 善惡이 區分되는 點에서는 陽은 君子 그리고 善事로 하고 陰을 小人으로 하고 惡事로 하여 陽을 도우고 陰을 抑制하는데 意義가 있다. 乾坤二卦는 六十四卦의 總괄이며 乾卦의 初九와 坤의 初六은 三百八十四爻의 보기이다. 陽은 그 微할때 보호하고 陰이 微할때 이것을 억제하고 警戒한다. 乾의 初九와 坤의 初六은 그 포함하는 바가 매우 廣大하여 君子小人의 用舍進退로 부터 天下國家의 治亂盛衰에 이르기까지 모두 應用된다.⁶⁷⁾ 六二의 爻辭는 「六二는 直方大라 不習이라도 无不利하니라」이다. 六二는 陰爻이며 柔順하고 得中得正 곧 中正의 德이 있다. 乾은 天道이며 君道로서 九五가 그 主爻인데 坤은 地道이며, 臣道이며 六二가 그 主爻이다. 六二는 坤道가 純粹하고 地道를 유감없이 發揮할 수 있다. 萬物을 生育하는 功적이 크다. 六二가 初六의 不中不正에 물들지 않고 不利함이 없다. 六三爻의 爻辭는 「六三은 含章可貞이니 或從王事하야 无成有終이니라」⁶⁸⁾이다. 才能과 德을 맘에 머금고 있어도 밖으로 表現하지 않고 바른 道를 行하여 有終의 美를 거둔다. 때와 경우에 따라 天子의 政事를 보좌하는 일이 있어도 柔順하게 天子의 일에 順從하여 스스로 成

66) 亞山先生 講論, 《周易講義》上, p. 83.

鈴木由次郎, 《易經》上, p. 101. 參照.

67) 亞山, 上揭書, p. 89.

鈴木, 上揭書, pp. 108~109.

68) 《周易傳義大全卷之·》, 諺解에 의함.

功하여 명예를 획득하려 하지 않고 이름은 없고 마침은 있다. 六四爻의 爻辭는 「六四是 括囊이면 无咎며 无譽리라」이다. 六四是 五位에 가깝고 그 勢力이 君主를 능가하기 쉽다. 만일 그렇다면 위태해진다. 주머니 속에 보배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게 꼭 묶어 두면 곧 自己知識이나 才能을 함부로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허물이 없으며 또 名譽도 없다.⁶⁹⁾ 六五의 爻辭는 「六五是 黃裳이면 元吉이리라」이다. 六五是 得中하였고 陰爻로 柔順하니 黃色(中央色)의 치마의 象이다. 이와같이 中庸의 德이 있고 柔順하며 謙遜한 象이니 大吉이다. 上六의 爻四는 「上六是 龍戰于野하니 其血이 玄黃이로다」⁷⁰⁾이다.

上六은 陰의 勢力이 盛大하여 陽物인 龍같이 보인다. 이 上六의 龍과 乾卦의 亢龍이 西北方郊外에서 싸운다.

이 流血의 血色은 亢龍의 것과 上六龍의 陰色인 黃色이다.⁷¹⁾

IV. 結 論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漢書藝文志》에는 易道는 深奧한 것으로 「人更三聖하고 世歷三古」라 하였다. 《周禮》에는 太卜의 官吏가 三易(《連山易》, 《歸藏易》, 《周易》)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하며, 《書經》의 <周書> 洪範에는 卜筮로 疑問을 풀고 있다. 그 밖의 《周書》, 《詩經》, 《左傳》, 《國語》 등에도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人類의 原初文化를 Shamanism이라고도 한다. 이는 民族信仰의 基盤을 이루는 原始宗教로서 지금까지 民間信仰에 傳承되어 있는 信仰이다. Shamanism의 職能은 司祭와 豫言과 醫巫이다. 이 脈絡이 《周易》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考察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周易》의 研究는 「人更三聖世歷三古」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周易은 朱子도 指摘한 바와 같이 占書이다. 勿論 占書에 局限되지 아니하고 小宇宙와 大宇宙를 一貫하는 天·地·人 三才의 道를 갖춘 太極陰陽을 論하는 哲學이며 天人之學이며 宇宙論으로서 儒家의 重要한 經書中 하나이다. 또 新儒學에 있어서 程朱學의 理論의 源泉이 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乾坤二卦는 64卦의 根幹이며 易의 門이다. 이 二卦는 나머지 62卦의 父母가 되

69) 亞山, 上揭書, pp. 91~92.

鈴木, 上揭書, pp. 111~115.

70) 上揭, 諺解.

71) 亞山, 上揭書, pp. 94~95.

鈴木, 上揭書, pp. 119~124.

니 이 二卦를 研究하면 64卦의 道理나 義理에 通達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갓 한갓에 64卦 384爻의 義理가 포함되어 이들을 窮究하면 避凶就吉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天地人三才의 道에 밝아 修齊治平하는 完人의 道를 體得할 수 있을 것이다.

乾坤 二卦는 「統天」, 「御天」思想이 體系化되어 있으며, 그 思想이 演繹的으로 構成되어 있다. 乾卦文言은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夫大人者는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合其吉凶하여 先天而天弗違하며 後天而奉天時하나니 天且弗違은 而況於人乎며 況於鬼神乎여

亢之爲言也는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地得而不知喪이니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好인저

坤卦의 初六에 대한 文言은 다음과 같다.

積善之家는 必有餘慶하고 積不善之家는 必有餘殃하나니 臣弑其君하며 子弑其父非一朝一夕之故라 其所由來者 漸矣니 由辯之不早辯也 易曰履霜堅氷至라하니 蓋言順也라.

다음은 六二에 대한 文言이다.

直은 其正也오 方은 其義也니 君子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여 敬義立而德不孤하나니 直方大不習无不利는 則不疑其所行也라.

다음은 六三의 文言이다.

陰雖有美나 含之하여 以從王事하여 弗敢成也니 地道也며 妻道也며 臣道也니 地道는 无成而代有終也라.

다음은 六四의 文言이다.

天地變化하면 草木이 蕃하고 天地閉하면 賢人이 隱하나니 易曰括囊无咎无譽라 하니 蓋言謹也라

六五에 대한 文言은 다음과 같다.

君子 黃中通理하여 正位居體하여 美在其中而暢於四支하며 發於事業하나니 美之至也라

힘쓰고 힘쓸 따름이다.